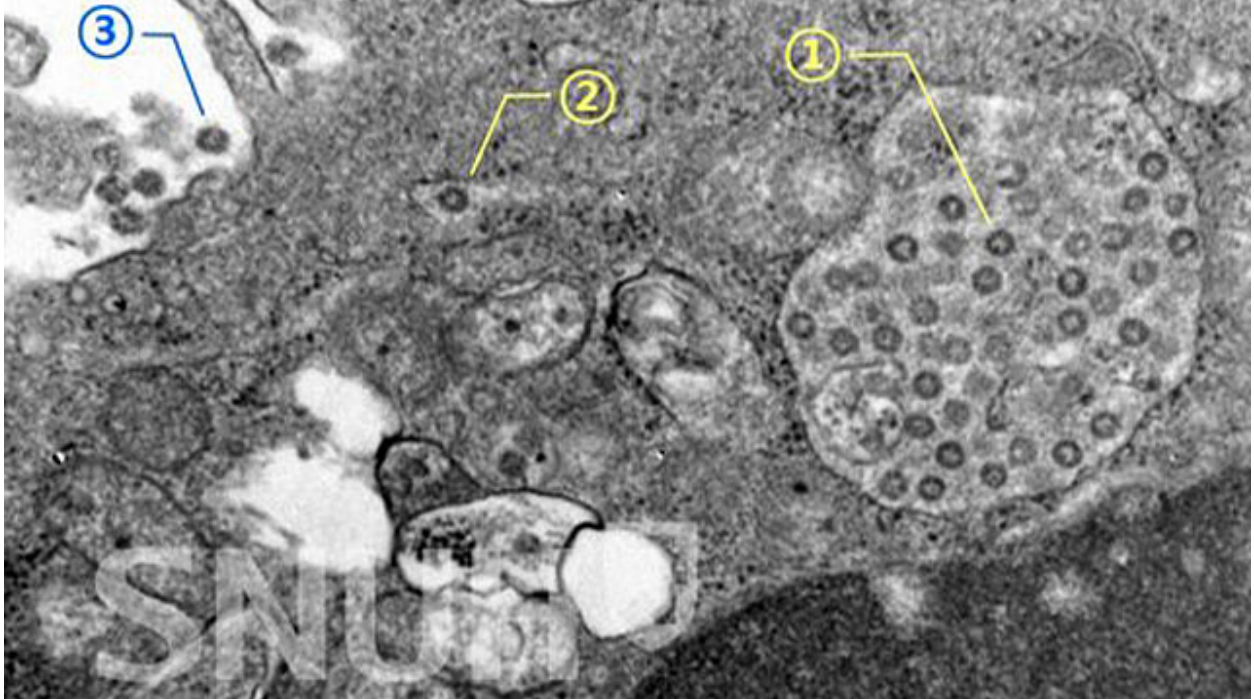




중국 연구팀 "코로나19 이미 변이...아류 2종류 나와"

기사입력 2020-03-04 17:01 최종수정 2020-03-04 17:20



코로나19가 이미 돌연변이를 일으켜 2종류의 아류형이 생겨났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중국 평파이(澎湃)가 오늘 보도했습니다.

중국 전문가들로 구성된 연구팀은 중국과학원이 발행하는 '국가과학평론' 3월호에 코로나19가 S형과 L형으로 이미 변이를 일으켰다는 내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현재까지 103개의 코로나19 유전체(게놈) 분자 진화 과정을 분석해 149개 돌연변이 지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혀냈다"며 "149개 돌연변이 중 다수가 최근에 변이를 일으켰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공개했습니다.

연구팀은 이어 "149개 돌연변이 중 101개가 두 아류형인 S형과 L형에 속한다"면서 "S형은 기존 코로나19 바이러스와 거의 유사하지만, L형은 전염력이 훨씬 강해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두 아류형은 전염력, 중증 증상 발현 정도 등에서 큰 차이를 보였고, RNA 28144번 유전체가 서로 다르게 구성돼 있다고 연구팀은 덧붙였습니다.

연구팀은 또 "폭발적으로 환자가 늘었던 초기 우한에서는 L형이 보편적으로 퍼져있었다"면서 "L형은 침투성이나 확산성이 더 강력하다"고 분석했습니다.

이 논문은 베이징대 생명과학학원 생물정보센터의 루젠(陸劍) 연구원과 중국과학원 상하이 파스퇴르 연구소 소속의 추이제(崔杰) 연구원이 주저자로 등재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정영훈 기자 (jyh215@kbs.co.kr)

- ▶ 코로나19 함께 이겨냅시다! 응원 릴레이
- ▶ '코로나19 팩트체크' 제대로 알아야 이긴다
- ▶ 더 빠르고 정확한 소식을 원하시면 KBS뉴스 구독!

이 기사 주소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POD&mid=etc&oid=056&aid=0010798922>
